

국제유가 강세 “오래갈 수 있을까?”

한은, 2004년 들어 유가 상승세 지속 ... OPEC 감산결정 효력 미미

2003년 하반기 Brent유 기준으로 배럴당 27-30달러대에서 큰 폭의 등락을 보이던 국제유가가 2004년 들어서는 미국-이라크 전쟁 이후 최고치인 32.6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조치, 이라크의 석유 수출 정상화 지연, 베네주엘라와 나이지리아의 정세불안 등으로 수급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수요는 2003년 중 1일 평균 546만배럴로 10.3% 증가해 세계 원유 수요 증가율 1.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03년 중국이 세계 원유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미국(25.5%)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라크의 석유 생산은 2004년 들어 1일 235만배럴까지 늘어났으나 전반적인 치안불안으로 남부 바스라항을 통해서만 수출되고 있어 바스라항의 1일 선적능력인 160만배럴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계 8위의 산유국인 베네주엘라는 2002년 말부터 2개월 동안 지속된 파업의 후유증으로 아직 OPEC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가운데 차베스 대통령의 재신임을 둘러싼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13위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역시 종족 분쟁, 유류보조금 철폐를 둘러싼 석유노조의 총파업 위협 등으로 공급차질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 석유 수급전망

(단위: 100만bbl/일)

전망기관 (전망일자)	구 분	2002	2003					2004				
			전체	1/4	2/4	3/4	4/4	전체	1/4	2/4	3/4	4/4
IEA (2004.1)	공 급	76.6	79.3	78.7	78.0	79.1	81.5	..	..	..	..	..
	(OPEC) ¹⁾	25.1	26.8	26.7	26.2	26.6	27.7	..	..	..	..	..
	(비OPEC) ²⁾	51.5	52.5	52.0	51.8	52.5	53.8	54.5	54.2	54.2	54.3	55.2
	수 요	77.0	78.4	79.0	76.1	78.0	80.7	79.6	80.0	77.4	79.2	81.9
	수급차	-0.4	+0.9	-0.3	+1.9	+1.1	+0.8	..	..	..	..	..
J. P. Morgan (2004.1.12)	공 급	76.4	78.9	78.6	78.0	78.8	80.1	79.8	79.7	78.9	79.8	80.8
	(OPEC) ¹⁾	25.4	26.9	26.8	26.6	26.8	27.5	26.7	26.8	26.2	26.6	27.0
	(비OPEC) ²⁾	51.0	52.0	51.8	51.4	52.0	52.6	53.1	52.9	52.7	53.2	53.8
	수 요	77.0	78.4	78.7	76.1	78.1	80.6	79.6	80.2	77.5	78.9	81.9
	수급차	-0.6	+0.5	-0.1	+1.9	+0.7	-0.5	+0.2	-0.5	+1.4	+0.9	-1.1
Goldman Sachs (2004.1.22)	공 급	76.6	79.4	78.9	78.1	79.1	81.3	81.8	81.5	81.5	81.7	82.3
	수 요	77.3	78.8	79.3	76.4	78.3	81.3	80.6	80.1	78.5	80.5	83.4
	수급차	-0.7	+0.6	-0.4	+1.7	+0.8	0.0	+1.2	+1.4	+3.0	+1.2	-1.1
ESAI (2003.12)	공 급	76.0	78.4	78.6	77.5	78.7	79.2	80.3	79.5	79.5	80.4	81.4
	(OPEC) ¹⁾	25.4	26.7	26.8	26.5	27.0	26.6	26.9	26.4	26.8	27.1	27.2
	(비OPEC) ²⁾	50.6	51.7	51.8	51.0	51.7	52.6	53.4	53.1	52.7	53.3	54.2
	수 요	76.7	77.6	78.8	76.0	76.8	79.0	79.0	79.2	77.5	78.4	80.7
	수급차	-0.6	+0.8	-0.2	+1.5	+1.9	+0.2	+1.3	+0.3	+2.0	+2.0	+0.7

† 1) OPEC 원유

2) 원유정제분 및 OPEC의 천연가스 생산 포함

이밖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2003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문 데 이어 2004년 1월 말에도 2억6367만배럴로

1975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저금리와 달러화 약세로 투기자본이 매수 포지션을 확대한 것도 유가 불안과 가격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 석유 시장에서는 테러위험 등 국지적인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라크 원유 생산 및 수출이 점차 정상화되고 비OPEC 산유국의 생산도 늘어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4년 천연가스 및 1차 정제를 포함한 석유 수요는 2003년보다 1일 100만~20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 공급도 큰 폭으로 늘어나 이례적인 요인이 없는 한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의 석유 증산량만으로도 수요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으며, 이라크의 증산(1일 100만배럴 내외)까지 감안하면 큰 폭의 초과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또 OPEC이 추가감산에 들어가더라도 감산 실행에 한계가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 등 일부 OPEC 회원국들이 자국의 생산능력 확대를 이유로 생산쿼터를 초과해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OPEC의 대규모 추가감산이 세계 2위 러시아 등 비OPEC 국가의 협조가 없이는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OPEC의 시장지배력도 약화될 수 있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4>